미국, 고용 및 주택지표 개선

김세중 선임연구원

■ 2월 16일 노동부에 따르면 2월 둘째 주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대비 1만 3,000명 감소한 34만 8,000명으로 나타났으며, 이는 2008년 3월 이후 가장 적은 건수로 고용시장 개선 신호로 해석됨.

- 주간 변동성을 제거한 4주 평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5주 연속 감소한 36만 5,250명으로 나타났으며, 이는 전년동기에 비해 13% 가량 감소한 것임.
-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감소는 기업의 해고가 감소하고 고용이 증가한 데 기인하며, 청구 건수가 37만 5,000건보다 낮은 수준을 지속하는 경우 실업률을 낮출 수 있을 만큼 고용시장이 개선된 것으로 받아들여짐.
- 한편, 1월 신규 고용자 수는 24만 3,000명으로 지난 9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으며, 1월 실업률도 5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며 8.3%를 기록함.

■ 2월 17일 상무부가 발표한 신규주택 착공 건수는 전월대비 연율 1.5% 증가한 69만 9,000채를 기록했으며, 주택착공의 선행지표인 건축허가 건수와 함께 건설회사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주택시장지수도 전월에 비해 증가하는 등 주택지표도 개선됨.

- 1월 신규주택 착공 건수 증가는 압류주택 과잉과 같은 건설경기 위축요인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 개선, 건축자재 가격 하락, 차입비용 감소 등이 작용한 결과이며, 1월 평균기온이 기록적으로 높았던 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지목됨.
- 주택 종류별로는 아파트와 같은 다세대주택 건설 증가세가 두드러진 반면 단독주택건설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, Societe Generale의 이코노미스트 Brian Jones는 향후 단독주택시장 회복 여부가 주택시장의 중요한 변수라고 지적함.
- 한편, 2월 15일 전미주택건설협회(NAHB)는 2월 NAHB/웰스파고 주택시장지수가 전월보다 4포인트 상승한 29를 기록했다고 밝혔으며, 이는 2007년 5월 이후 최고 수준임.

(LA Times, 2/16 등)